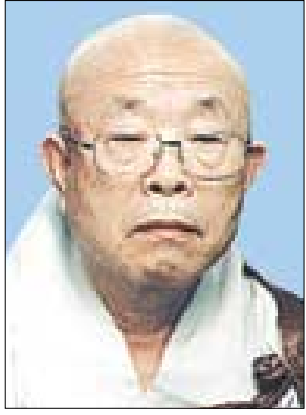


눈 앞에 향상의 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곳곳에도 깨닫는 길이

법전 조계종 종정



오늘 아침 하늘이 법들을 밝혀
사방세계(十方世界)가 역사
(歷史)를 맞습니다.
집집마다 건곤(乾坤)의 덕(德)
이 쌓이고
온누리에는 혜일(慧日)이 충
만합니다.
산과 들에 법계(法界)를 장엄
하는 풍류(風流)가 가득하니
야노(野老)는 졸없는 거문고
로 무생가(無生歌)를 부릅니다.

금룡(金龍)은 골짜기에서 법우(法雨)를 물고 나오고
새들은 꽃 속에서 향기를 안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는 만복(萬福)이 들어 있고
눈 속에는 푸른 하늘이 가득 합니다.

곳곳에는 도(道)를 깨닫는 길이 있고
눈앞에는 향상(向上)의 관문(關門)이 열려 있습니다.
법에 얽매이면 자유롭지 못 하고
이념(理念)에 집착하면 편견(偏見)이 사람을 해칩니다.

밖으로 욕망과 집착을 버리면
알을 품은 금닭은 구름 밖에서 노래를 할 것이요
안으로 성인(聖人)과 범부(凡夫)를 분별하는 미혹(迷惑)을 버리면
새끼를 가진 목마(休馬)가 불 가운데서 잠을 잘 것이니

千年無影樹(천년무영수) 천년 묵은 그림자 없는 나무요
今時沒底靴(금시몰저화) 오늘의 바닥없는 신이나라.

법어 전문은 buddhanews.com



■ 신년취호

飲茶最宜(음다최의)
精行儉德(정행검덕)

차를 마시는 가장 최선은 검소한 덕인이 되려고 정진함에 있다.

원법 스님(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 축화 만지송(萬枝松)

천수천안관세음(千手千眼觀世音) 보살의 수많은 눈과 손으로 무한한 자
비를 베푸는 공덕을 '만지송(萬枝松)'을 통해 느낀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수많은 일과 만남이 한뿌리의 일체감 속에서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나날이기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호신(한국화가)작

부지런히 닦아 해탈대장부 되라

해초 태고종 종정



해가 바뀔수록 인자(仁智)가 명
민하여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세상이
잡번(雜繁)하여 모두가 몽상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을 파괴하여 수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을 차지하기 위하여 갈등
과 쟁투를 일삼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세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법
(季法)시대에는 투쟁(鬪爭)이 치성(熾盛)한다 하였습니다.
투쟁(鬪爭)이란 지구촌이라는 작은 우리속에 아집과 이기, 대립과 갈등이라는 사나운 짐승들이 뒤엉켜 서로 물고 뜯고 죽고 죽이는 중생계의 현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가랑이에 눈을 가리면 태산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가랑이에 눈이 가리어 국가와 사회와 이웃이라는 큰 태산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세상이 혼란한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마다 만물의 창조자요, 세상의 주인인 까닭에 세상이 혼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급년 한해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된 생각을 바꾸고 자수정진(自修精進)하여 청정(淸淨)하고 명미(明妙)한 지장각(智正覺) 세계를 이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락)

감사하고 참회하라

도용 천태종 종정



誰將明鏡來相照
(수장명경래상조)

珠在皮膚自不知
(주재피부자부지)

馳走念波三千罪
(치주염파삼천죄)

萬法歸依一爐烹
(만법귀의일노평)

누가 밝은 거울 가져와 비춰주려나
구슬을 가지고도 스스로 알지 못하네
치닫는 사비의 파장 삼천세계에 미치지나
흩날리는 눈송이 화롯불에 녹아내리네

보살마음 내는 자는 모든 중생 보살이요
중생마음 내는 자는 사대성인 중생이라
남의 공덕 내 일처럼 따라 기뻐하여주며
감사하고 참회하면 서방정토 이 아닌가

정진의 씨앗을 마음에 심자

혜일 진각종 총인



심인(心印)의 바다 동쪽에 솟는 해는
뭇 중생들의 밝은 눈이 되어 좋고 진리의
산 서쪽에 지는 달은 별들의 빛이 되어
좋아라
가고 오는 법칙이 처음은 아니언만
언제나 생각은 새로운 것을 꿈꾼다.
머리를 쓰다듬어 참회를 하고
가슴을 여미면서 자성을 찾는 해가 수 없이 스쳐갔건만 전
삼십과 후 삼십의 문턱에서 다시 또 삼십을 비상하러 비로자
나 법신의 진언을 송한다.

이 밝고 아름다운 새 아침 진실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슬
픔과 아픔을 여의고 누구나 다 행복해지도록 행복의 씨앗을
심습니다.(후략)

마음 맑으면 여래가 나타난다

죽산 관음종 종정



진심이 어디 있는가 바로 망념 가운데
있나니
망념을 떠나 진심은 거북이 털을 구함
이요.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여래가 절로 나
타난다.
물이 맑고 밝으면 해와 달이 선명히 비
추듯이
동서남북 어디에도 묻이 없으니
넓은 땅이 산과 강을 감추지 못하네.
모든 물건이 다 진리를 드러내 보이거늘
마음을 삼 가닥처럼 어지럽게 해서 찾지 말지어다.

자비실천으로 불국정토 이루길

효강 총지종 종령



불자님들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
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
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가슴
가득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지난
난 과거의 삶은 묻어두고 새로운 햇살과
함께 새로 시작하려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불빛을 밝혀야
합니다. (종락)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키고, 큰 원을
발하여, 정밀하게 삼매를 닦고,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깨달음의 길은 반야를 증득하는 것이라, 반야의 지혜를 얻
고자 하는 자는 부처님의 넓고 크신 원대한 대비심을 마음속
에 간직하고 일상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후략)

"좋은점은 과감히 실천"

동광 총화종 종정



送西迎戊 改革(송유
영술 개혁화)
宗務行政 大革新(종무
행정 개혁신)
融化團結 忍願心(융화
단결 인보심)
相互容恕 化舍心(상호용서 화합심)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을 보내고 희망과
광명찬 병술년을 맞이하여 지나간 일들을
거울삼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좋은 점
은 과감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 중시해야

혜일 보문종 종정



전력요즈음 베이징기
세포에 따른 생명윤리 문
제로 온 지구촌이 소란스
럽습니다. 생명의 본질에
관련 바른 견해가 서야
현대사회의 당면한 문제
에 불교의 올바른 처방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종락)
생명의 존엄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롯한 타 생명체를 동등하게 중
시해야만 합니다. (후략)

나날이 새해로다

연화 미륵종 종정



어제 그날이 오늘 이
날이요
오늘 이날이 내일 그
날이로다
가고올이 본래 요요
(寥寥)하니
나날이 새해로다.
셋방살이 나그네가 주인을 친견하니
삼세일여(三世一如)로다.

마음 맑으면 혼란없어

일공 원용종 종정



다사다난했던 2005년
을 마무리하고 2006년
병술년 희망찬 햇살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
니다.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삼독심으로 인한 것이거늘, 하늘이 맑고
땅 위에 물이 맑으면 대지가 풍성하고 운
택해지듯 우리들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의
혼란도 차츰 사라질 것입니다. (후략)

원용상생으로 화합하자

해곡 열반종 종정



전력을유년도 세계각
국은 폭동 테러와 전쟁
등으로 탐진치 삼독(三
毒)에 과에서 깨어나지
못하였으니 대자연도 분
노하여 태풍과 지진, 폭
설 등의 재앙의 연속이다. (종락)
병술년은 태양처럼 희망의 새해를 맞이
하여 모든 중생이 원용상생으로 화합하고
자비를 베풀고 세계평화를 위해 참회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것이다.

욕심 버리면 편해집니다

혜안 무량종 종정대행



수많은 세월 속에 봄
은 가고 오건만
불이 와도 눈먼 거북
이 꽃을 보지 못한단데
지리산 칠성봉에 감추
어진 일곱가지 보배어산
이 열려 일곱 번 비가 올때 생물을 보리라
욕심이 가하면 또 한해가 어지럽고
다 버리면 편해지네 싸울 일도 없구나
새옹이 트면 온 인류가 서로 손을 맞잡
고 풍년가를 부르면서 태평성대 하소서

대화와 용서의 한해를

봉해 (재)일불선교종 종정



부모가 자손을 버리면
아이들은 늦은 봄 긴 가
뭉에 타죽는 잔디처럼
그렇게 갑니다.
또 자손이 부모를 버
리면 고기 없는 연못가
에 늙은 황새처럼 쓸쓸이 살다가 생을 마
칩니다. (종락)
뜻이 맞지 않다고 돌아서지 말고 대화
와 용서, 그리고 서로 화합하는 한해가 되
길 바랍니다.

본래불성으로 희망 사회를

지명 조동종 종정



오늘 우리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접하고 있
습니다.(종락)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물질적 풍요 속에 문헌,
인간성 상실은 우려할
만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깊은 불심으로 이 어려
운 시국을 극복해 희망 넘치는 좋은 사회
를 창조해나갑시다.

자성의 길에 복이 있다

지산 정토종 종정



여기서도 근심이요
저기서도 근심이요
약한행도 두 곳에 있
도다.
기쁨과 행복 또한 두
곳에 있으니
약한 마음 스스로 깨끗이 하여
청정을 찾으라.
자성의 길에서 복이 있다.

생명의 아름다운 조화

경조 불입종 종정



세월은 흘러가도 자취
를 남기지않고 허공은
옹남해도 제 터를 잃지
않습니다.
세상만물이 저마다 제
탈을 쓰고 모자람이 없
는 제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차별상에 매
인 중생들은 한시도 다름이 끊이지 않습
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마음눈이 밝혀져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
답고 고귀한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후략)

화해와 용서, 화목으로

혜봉 해동종 종정



화합으로 본래를 찾자
을유를 보내고 병술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만과 집착의 을유년
을 돌아보고 동체대비심
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어떠함이 새해에 마땅히 할 일인가?
화해와 용서를 먼저 생각하고 화목과
이해로써
함께하는 세상을 이루도록 맑은 바 자
리에서 노력합시다.

책임 다하면 태평성세

월인 승가종 종정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기약
이 없습니다. 어제를 되
돌아보고 오늘에 임해야
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승가는 승가 본연의 자세에 임해야 하
고, 재가는 재가 본연에 임하여
국민 각자의 맡은바 책임을 다할 때
태평성세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열심히 기도 정진하십시오.